

Rizzuto의 하나님 이미지 이론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고찰과 적용 방안 연구

- 하나님 이미지 변화 상담 모델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

심정연*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상담에 하나님 이미지의 적용을 위해, 가장 대표적인 Rizzuto이론을 이해하고 기독교 상담에의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과정은 먼저 Rizzuto의 하나님 이미지 이론을 살펴보고, 이론의 고찰을 위해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 이미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Rizzuto이론의 한계와 유용성을 확인하고 실제적인 적용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성경의 하나님 이미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Rizzuto이론에 대한 평가와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Rizzuto 이론은 하나님에 대해 인지적 차원만을 고려했고,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간과했다. 또한 하나님을 중간대상으로 제한하며, 특정 하나님 이미지에 고착될 수 있는 위험을 지닌다. 그러나 체계적인 하나님 이미지 진단에 대한 아이디어와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부모와의 관계 경험의 영향력, 개인의 죄와 정신 병리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적용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하나님 이미지 진단을 위해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진단법을 제시한다. 둘째, 성경의 하나님 이미지 기반의 변화과정을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가족, 공동체, 기독교 상담자와의 영적 교제를 통한 하나님 이미지 변화를 제안한다.

중심단어 : Rizzuto, 하나님 이미지, 대상관계, 성경의 하나님 이미지, 하나님 이미지 진단법

• 논문 투고일: 2016년 9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6년 10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11월 1일

*충신대학교

I. 여는 글

하나님 이미지는 개인이 지닌 총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정신건강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들은 지난 50년간 꾸준히 밝혀져 왔다.¹⁾ 실제 하나님 이미지는 우울²⁾, 불안³⁾, 심리적 고통⁴⁾과 같은 정신 병리와 연관성 뿐 아니라, 영적, 심리적 안녕감⁵⁾, 회복탄력성⁶⁾, 자존감⁷⁾과 같은 심리적 자원에도 영향력이 확인되면서 정신건강 분야에서 그 중요성을 주목받아 왔다.

하나님 이미지의 개념은 대상관계 이론의 전통을 따르는 정신과 의사인 Ana-Maria Rizzuto⁸⁾에 의해 상담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담론되었다.

-
- 1) M. Bradshaw, C. G. Ellison & J. P. Marcum, "Attachment to God, Images of God,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 Nationwide Sample of Presbyterian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0, no 2 (2010): 130-147.
 - 2) 황혜리 · 류수정, "기독교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1권(2006): 191-212.
 - 3) 김화자, "하나님 이미지와 수치심이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0권(2013): 94-124.
 - 4) Bradshaw, Ellison & Marcum, "Attachment to God, Images of God,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 Nationwide Sample of Presbyterians," 130-147.
 - 5) 황혜리 · 김지윤, "기독교 상담에서 하나님 이미지의 중요성 연구: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영적 안녕,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3권 1호(2012): 191-263-286.
 - 6) T. T. Nguyen, C. Bellehumeur & J. Malette, "God Images and Resilience: A Study of Vietnamese Immigrants," *Journal of Psychology & Theology* 43, no 4 (2015): 271-282.
 - 7) 황혜리 · 김경탁, "기독교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자존감의 관계",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6권 1호(2005): 275-286; P. Benson & B. Spilka, "God Image as a Function of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2(1973): 297-310.
 - 8) 아르헨티나 출신인 Anna-Maria Rizzuto는 정신과 의사(M. D.)로 보스톤 정신분석학회 멤버이고, PINE 정신분석학회 명예 슈퍼바이저이다. 1981년에 '살아있는 신의 탄생'을 썼고, 정신분석과 종교에 관한 다수의 책을 저작했다. 보스톤의 Tufts Medical Center의 정신과에서 수련했다. Boston Psychoanalytic Society & Institute, Health Grove, Pine Analytic Center Accessed on October 27, 2016, available at :<http://bpsi.org>, <http://doctors.healthgrove.com>, <http://www.pineanalysis.org>.

하나님 이미지를 일종의 ‘대상’ (Object)으로서 주목했던 그녀는 보스톤 주립 대학 병원의 내담자들이 경험하고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와 가족 이미지, 정신 병리와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⁹⁾ Rizzuto가 하나님 이미지의 이론을 발표한 이후, 하나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내적 표상 세계를 강조한 McDargh¹⁰⁾, 하나님 이미지의 발달 측면을 제시한 Meissner¹¹⁾, 하나님의 이미지와 타인의 이미지와의 연관성을 주장한 Jones¹²⁾에 이르기 까지 하나님 이미지 이론은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처럼 하나님 이미지라는 개념이 연구와 상담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 이미지 이론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들을 제안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하다. 기존에 하나님 이미지 이론을 평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대상관계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학적 관점 중심의 평가에서 그쳤거나,¹³⁾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충분히 제시하는 연구는 미흡했다. 기독교 상담의 관점에서, 성경의 내용과 원리를 기반으로 일반 이론을 평

- 9) A. M. Rizzuto, *The Birth of the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이재훈 · 유영권 · 안석모 · 황영훈 · 반신환 · 정희성 역, 『살아있는 신의 탄생-정신분석학적 연구-』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2000), 12, 329.
- 10) J. L. McDargh, “God, Mother and Me: An Object Relational Perspective on Religious Material,” *Pastoral Psychology* 34, no 4(1986): 251-263.
- 11) W. W. Meissner, *Psychoanalysis and Religious Experience*(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B. F. Brokaw & K. J. Edwards, “The Relationship of God Image to Level of Object Relations Develop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2, no 4 (1994): 352-371에서 재인용.
- 12) J. W. Jones, *Contemporary Psychoanalysis & Religion -Transference and Transcendence-*, 유영권 역, 『현대 정신분석학과 종교-전이와 초월』 (서울: 한국심리 치료 연구소, 1999), 134-137.
- 13) 반신환, “신형상(Divine Image)에 대한 Rizzuto의 대상관계론적 이해와 그 비판”,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13호(1997): 213-228; 이재현, “인간 형상과 하나님 형상: 내면적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목회 신학적 고찰”,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제21권 (2013): 191-215; 이해리, “심리치료에서의 종교와 하나님 표상에의 접근: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연구』 제5권 4호(2004): 1293-1310.

가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특정 이론을 기독교 상담에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필수적이기에 이 과정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뿐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진단 방식은 단편적인 이미지만을 진단하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주로 그림을 매개로 하나님 이미지를 진단했기 때문이다.¹⁴⁾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 관점으로 하나님 이미지 이론을 평가하고,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를 제시하며, 상담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다각도의 ‘진단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 이미지 이론을 최초로 정립하고, 심층적인 경험적 연구를 진행한 Rizzuto의 이론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왜냐하면 Rizzuto의 이론이 지금까지 하나님 이미지 이론의 큰 중심축을 형성할 뿐 아니라¹⁵⁾, 여전히 상담과 연구 현장에 가장 유용하고 활발하게 쓰이기 때문이다.¹⁶⁾ 실제 다수의 경험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Lawrence의 하나님 이미지 척도 또한 Rizzuto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¹⁷⁾

Rizzuto의 이론을 기반으로 기독교 상담의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인지심리학과 대상관계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Rizzuto의 하나님 이미지 이론을 설명한다. 그 후, 성경에서 명시하는 하나님 이미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Rizzuto의 하나님 이미지 이론을 성경적 관점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상담현장의 적용 방안으로 하나님 이미지 진단법, 성경의 하나님 이해와 영적 관계를 통한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제시한다. 향후 본 연구는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성경적 관

14) 안은숙,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 연구”, 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1권(2013): 184.

15) B. F. Brokaw & K. J. Edwards, “The Relationship of God Image to Level of Object Relations Develop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2, no 4 (1994): 352–371.

16) J. M. Peloso, “Adult Images Of God: Implications For Pastoral Counseling,” *Journal of Pastoral Counseling* 43 (2008): 15–31.

17) R. T. Lawrence, “Measuring the Image of God: The God Image Inventory and the God Image Scal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no 2 (1997): 214–226.

점을 학문적으로 제시하고, ‘하나님 이미지 변화 상담 모델’을 위한 예비연구로서 활용될 것이다.

II. 펴는 글

1. Rizzuto의 하나님 이미지 이론의 이해

Rizzuto는 대상관계이론뿐 아니라 인지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이론을 구축했다. 왜냐하면 ‘대상(Object)’은 개인의 기억이라는 Piaget의 의견을 그녀가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¹⁸⁾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상관계 측면에서 Rizzuto의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의 하나님 이미지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1)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관점

먼저 하나님 이미지를 이해하기에 앞서 이미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본다. 이미지

(Image)의 사전적 정의는 생생한 표상, 특정한 정신적 개념이나 그림, 인상을 의미한다.¹⁹⁾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이미지는 표상(representation)이라는 용어로 이해된다. 표상은 기억의 일종으로 대상에 대한 추상적 상징들과 시각적 이미지, 일화(episode), 감정들을 포함한다.²⁰⁾ 구체적으로, 특정대상에 대한 표상 즉 이미지는 이름, 시각적 이미지, 사실, 일화,

18) J. Piaget,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New York: Norton, 1951), 128-129;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130에서 재인용.

19) Merriam-Webster Dictionary. Accessed on March 5, 2016, available at: <http://www.merriam-webster.com>.

20) 이정모 · 강은주 · 김민식 · 감기택 · 김정오, 『인지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9), 14-15.

기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²¹⁾ 이것을 하나님의 이미지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이미지, 외모나 성격, 하나님에 관한 에피소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릴 때 느끼는 정서까지 포함되는 총체적인 이미지를 개인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청소년이 '수용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는 기도 중 자신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과, 그 때 경험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장된 기억들은 외부 자극이 있을 때 반출되고, 새로운 외부 자극 경험을 기반으로 재구성된다.²²⁾ 한 개인의 '수용적인' 하나님에 대한 표상은 개인의 느낌 뿐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반출될 수 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묵상할 때, 수용의 하나님 모습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 이미지는 개인의 기억 체계에 저장된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과 성경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개념의 연합체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 이미지는 장기기억으로 남아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지가 단어나 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의미기억과 개인이 경험한 맥락을 비롯한 사건을 저장한 일화기억²³⁾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중 일화 기억 안에는 사건 발생에 관한 시간과 장소와 같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²⁴⁾ 예를 들면 하나님께 수용 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이 수련회 때 십자가 복음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용서와 수용을 경험한 것은 하나의 일화가 되어 기억으로 남는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은 수련회라는 특정 맥락과 함께 일화기억으로 저장된다. 인지 심리학 관점에서, 하나님 이미지는 개인의 인지 기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지

21) 이정모 외 4명, 『인지심리학』, 14-15.

22) 이정모 외 4명, 『인지심리학』, 14-15.

23) 예를 들어 토끼가 동물인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인지 등을 물을 때 활용되는 기억이다. 이정모 외 4명, 『인지심리학』, 14-15, 172-183.

24) 이정모 외 4명, 『인지심리학』, 14-15, 172-183.

능력이 중요시된다. 여러 연구는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이나 인지적 편향과 부정적 하나님 이미지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한다.²⁵⁾ 이것은 개인의 인지구조 및 기능이 개인이 갖는 하나님 이미지 형성과 유지 과정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시사한다.

2)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대상관계이론 관점

Rizzuto의 이론의 근간이 되는 대상관계이론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부모 또는 주요 인물이 투사되어 만들어진 환상이거나, 개인의 상상 속에 존재하여 위로를 주는 중간대상이라고 주장한다.²⁶⁾ 대상관계의 뿌리인 정신분석의 시초인 Freud는 하나님 이미지가 원초적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의 상이 투영된 ‘고양된 아버지상(exalted father)’이며, 아버지와 관계에 따라 하나님 이미지가 변화한다고 설명하였다.²⁷⁾ 그에 따르면 개인은 유아 때부터 자신을 권위자들과 동일시하고 그들을 내사시키면서 초자아를 형성하고, 초자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²⁸⁾ 초기에 유아는 3-5세 겪는 오이디푸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했던 아버지 이미지로 하나님 이미지를 구성한다.²⁹⁾ 그

25) 황혜리 · 김미경, “기독교인의 하나님 이미지와 비합리적 신념의 상관관계”, 867-881; 이혜진, “기독교대학생의 인지적 편향과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 한국복음주의 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8권(2007): 278-299.

26) S. Freud, *Totem and Taboo*(London: Routledge, 2004), 164-165, 171;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53, 75에서 재인용;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329.

27) Freud는 신을 조상의 원상과 실제 아버지 원상의 혼합으로 보았다. 조상의 원상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원초적 아버지였다. 이 원시 아버지의 강압을 이기지 못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살해하였다. 그 아버지 이미지는 마음속에서 신으로 변화되었다. Freud, *Totem and Taboo*, 164-165, 171;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53, 75에서 재인용.

28) S. Freud, *Some Reflections on Schoolboy Psychology*(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1924), 168;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66에서 재인용; Freud, *Totem and Taboo*, 164-165, 171.

29) Freud, *Totem and Taboo*, 149-150;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67.

후 선생님, 영웅 등의 권위자를 내사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권위자인 신의 표상을 형성하고 내사시킨다.³⁰⁾ 아버지의 표상의 확장으로 하나님 이미지를 설명했던 Freud에 반해 Jung은 하나님 이미지가 다양한 원형 중 하나이며, 궁극적으로 ‘자기(Self)’의 원형이라고 설명했다.³¹⁾ 즉 자기이미지가 하나님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Freud이후, 대상관계의 관점에서 하나님 이미지 이론을 최초로 정립한 사람은 Rizzuto였다. 그녀는 보스톤 주립 대학의 정신과에서 네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임상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이론을 수립한다.³²⁾ 그녀의 연구 자료들은 하나님과 부모와의 관계 경험, 가계도, 발달적 인생 내력 등으로 구성되었다.³³⁾ 연구 분석 결과, 각 개인은 각자의 하나님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와 주요 대상과의 관계 경험, 자신의 기대들이 하나님 이미지에 투영되어 있었다.³⁴⁾

Rizzuto는 이론 수립 과정에서 기존 이론들과의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한다.³⁵⁾ 다음과 같이, 그녀는 Piaget의 인지발달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인지적 관점을 강조하였고, 하나님 이미지 형성과 부모 이미지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중간 대상으로서 하나님 이미지를 확장하였다.

30) S. Freud, *Some Reflections on Schoolboy Psychology*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1914), 243; S. Freud, *The Economic Problem of Masochism*(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1924), 168;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65-66에서 재인용; Freud, *Totem and Taboo*, 164-165, 171.

31) C. G. Jung, *Psychology and Religion*(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38), 73; C. G. Jung, *Psychology and Religion: West and East*, Collected Works 11(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4), 468;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78-79에서 재인용.

32)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178-324.

33)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28-30.

34)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350.

35)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350.

무엇보다 먼저, Rizzuto는 대상(Object)의 영향력을 ‘인지적 측면’으로 환원시키면서 대상 자체가 아니라, 과거 대상과의 경험 기억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³⁶⁾ 그녀는 Piaget의 ‘표상은 관념체계에 기반한 기억’이라는 주장을 수용하여, 표상을 대상에 대한 기억으로 주장한다.³⁷⁾ Rizzuto가 주장한 대상과의 관계 경험 기억은 대상에 대한 특정 기억에 따라 내장적 기억, 감각운동 기억, 지각적 기억, 화상적 기억, 개념적 기억으로 다양하게 저장된다.³⁸⁾ 이런 대상과의 새로운 경험기억들은 대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³⁹⁾ 그러나 이 관점은 대상 자체의 영향력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대상관계 이론과 상반된 관점이다.⁴⁰⁾ 왜냐하면 전통적인 대상관계 이론들은 내적 대상의 실체가 외부 실체와 같이 개인을 조종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이다.⁴¹⁾ 더 나아가 특정 대상 이미지가 생애 초기에 결정되어 평생 지속된다는 Freud의 입장과 반대로 Rizzuto는 하나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고 설명한다.⁴²⁾

둘 째, Rizzuto에 따르면, 하나님 이미지는 생후 직후부터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 및 ‘주요 양육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자기감에 영향

36)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109-110.

37) Piaget,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128-129;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130에서 재인용.

38) ① 내장적 기억은 특정 대상과 개인의 몸에 관한 경험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특정 대상에 대한 정서와 연관될 때 몸에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② 감각운동 기억은 자신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특정 감각운동적 경험이 나타나 몸의 운동으로 나타난다. ③ 지각적 기억은 과거 대상이 했던 말 등이 떠올라 현재에도 과거 대상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④ 화상적 기억은 환각이 아닌 실제 대상이 생생하게 보이는 것이며, 현실을 방해하는 기억이다. ⑤ 개념적 기억은 대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보를 특정 개념으로 기억하여 회상하는 것이다.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113-117.

39)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109-110.

40)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113-117.

41)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65.

42)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332, 376.

을 준다.⁴³⁾ 이 시기는 오이디푸스 갈등 시기 이후에 하나님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Freud의 입장⁴⁴⁾보다 더욱 앞선 시기이다.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부(父)의 영향력을 강조한 Freud와 다르게 Rizzuto는 모(母)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하나님 이미지가 형성됨을 주목한다.⁴⁵⁾ 즉 강하고 힘 있는 보호대상인 아버지보다, 따뜻하며 수용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유아에게 내사되어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⁴⁶⁾ 하나님 이미지는 자기 이미지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⁴⁷⁾ 모(母)가 유아를 반영(Mirroring)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 유아는 자기감이 결핍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여 과도한 자기상을 형성할 수 있다.⁴⁸⁾ 하나님 이미지와 자기 이미지의 상호적 관계는 Jones의 상담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의 한 내담자는 방어적 태도의 자신의 모습을 수용할 때 자기이미지 뿐 아니라 하나님이미지도 변하였다.⁴⁹⁾ 그의 하나님 이미지는 ‘명령하고 요구하는 하나님’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하였다.⁵⁰⁾ 또 다른 내담자는 치료자의 공감을 통해 자기구조가 확립되는 과

-
- 43) 반신환, “신형상(Divine Image)에 대한 Rizzuto의 대상관계론적 이해와 그 비판”, 224.
- 44) Freud는 남아가 남근기(리비도-성적 에너지-가 성기에 모이는 시기: 3-5세)에 오이디푸스 갈등 시기를 거친다고 설명한다. 남아는 어머니를 차지하고 싶은 갈망과 아버지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인한 절망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궁극적으로 동경하게 되어 아버지를 내재화한다. Freud는 이 과정을 남아 아동의 핵심 전환점으로 보았으며, 개인의 초자아(규범, 질서 제시)가 형성되는 기반으로 보았다.; S. Freud, *Analysis of a Phobia in a Five-Year-Old boy*,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1919); Freud, *Totem and Taboo*, 149-150에서 재인용.
- 45) 반신환, “신형상(Divine Image)에 대한 Rizzuto의 대상관계론적 이해와 그 비판,” 224.
- 46) 반신환, “신형상(Divine Image)에 대한 Rizzuto의 대상관계론적 이해와 그 비판,” 224.
- 47)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333.
- 48)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349-350.
- 49) Jones는 방어적 자기와의 직면을 통해 자기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Masterson의 상담 방법을 사용하였다. Jones, 『현대 정신분석학과 종교-전이와 초월』, 136-137에서 재인용; Jones, 『현대 정신분석학과 종교-전이와 초월』, 134.
- 50) Jones, 『현대 정신분석학과 종교-전이와 초월』, 134.

정에서 자기이미지가 수정되었을 때, 좀 더 수용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⁵¹⁾

세 번째로, 하나님 이미지를 단순한 '환상' 이라고 언급한 Freud⁵²⁾보다 Rizzuto는 위로를 주는 상상의 대상인 '중간대상' 으로 보다 정교한 개념을 사용한다.⁵³⁾ Winnicott이 주장한 중간 대상은 '중간영역' 에 존재하는 대상들이다.⁵⁴⁾ 중간 영역은 외적, 내적 실재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개인이 상상 속에 만든 쉽의 장소이다.⁵⁵⁾ 동시에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 사이의 공간이며, 개인의 환상이 다뤄지는 장소이다.⁵⁶⁾ '중간대상' 은 개인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며, 자신의 환상과 상상 안에서 개인이 창조해낸 독특한 대상이다.⁵⁷⁾ 중간 대상의 예들은 주로 유아들의 첫 소유물로 장난감, 담요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담요나 천을 인격적 대상으로 대하여, 담요에 과하게 애정을 다하거나 과감하게 공격하기도 한다.⁵⁸⁾ 이 과정에서 유아에게 이런 중간대상은 실제 삶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⁵⁹⁾ 유아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중간대상은 여전히 중요하다.⁶⁰⁾ 왜냐하면 아동들은 잠들거나 외로울 때, 불안과 우울을 방어하기 위해 담요나 장난감 같은 중간대상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

51) Jones는 Kohut의 이론을 기반으로 공감을 통한 내담자의 새로운 자기구조 확립을 통해 자기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개입을 시도했다. Jones, 『현대 정신분석학과 종교-전이와 초월』, 134.

52) 반신환, “신형상(Divine Image)에 대한 Rizzuto의 대상관계론적 이해와 그 비판,” 224.

53)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329.

54) Winnicott, *Playing and Reality*. 이재훈 역, 『놀이와 현실』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16, 329.

55) Winnicott, 『놀이와 현실』, 15.

56) Winnicott, 『놀이와 현실』, 16.

57) Winnicott, 『놀이와 현실』, 16, 329.

58) Winnicott, 『놀이와 현실』, 19.

59) Winnicott, “Transitional Objects and Transitional Phenomena,”;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327에서 재인용.

60) Winnicott, 『놀이와 현실』, 18.

이다.⁶¹⁾ 성인이 되어 중간 대상은 개인의 상상과 예술, 종교 등을 통해 새롭게 경험된다.⁶²⁾ Rizzuto는 하나님이미지를 이런 중간대상으로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중간대상과 두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강조한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이미지를 구성하는 재료는 실재하는 외적 대상이 아닌 내적 이미지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⁶³⁾ 예를 들어 다른 장난감이나 담요는 실제 존재하는 외적 대상으로 이뤄진 이미지이지만, 하나님 이미지는 개인이 갖는 내적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형성된다.⁶⁴⁾ 두 번째로, 하나님 이미지는 평생 사라지지 않고 개인에게 의미를 지닌다.⁶⁵⁾ 유아의 상상과 환상 속의 중간대상에 대한 애착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감소하고 소멸하며, 궁극적으로 그 의미를 상실한다.⁶⁶⁾ 유아가 한 때 애착을 갖고 애지중지하던 담요나 인형에게 무관심해지는 것과 같다. 이에 반해 하나님 이미지는 오이디푸스 시기를 포함한 전 생애에 걸쳐 중간대상으로 남아 있으며 개인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활용된다.⁶⁷⁾

대상관계의 관점에서 Rizzuto는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인지적 요소가 주요 작용을 하고, 부모와 자기 이미지가 하나님 이미지에 긴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하나님 이미지가 단순 환상이 아닌 중간대상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인지심리학과 대상관계이론에서의 Rizzuto의 이론은 개인이 지닌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적 활용을 위해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정교한 평가와 고찰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독교 상담의 고찰 기준이 되는 하나님 이

61) Winnicott, 『놀이와 현실』, 18.

62) Winnicott, “Transitional Objects and Transitional Phenomena,”;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327에서 재인용.

63)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329.

64)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329.

65)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330.

66) Winnicott, “Transitional Objects and Transitional Phenomena,”;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329에서 재인용.

67)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330.

미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살펴본다.

2. 하나님 이미지에 관한 성경적 관점

1)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

하나님 이미지에 관한 성경적 이해는 ‘인간이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과정’과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이미지’를 기반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Rizzuto의 이론은 그 기저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과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신에 대한 인식론은 신을 알아가고, 인식하는 방법을 총괄한 개념이다.⁶⁸⁾ 하나님의 인식론을 주목했던 Calvin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알아가는 ‘영적지식’이다.⁶⁹⁾ 즉 타지식과 같이 정보를 객관적 데이터로 조사하고 습득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이다.⁷⁰⁾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반에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존재함을 의미한다.⁷¹⁾ 동시에 ‘영적 지식’은 개인의 인지적인 능력뿐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개인이 하나님에게 대해 갖는 마음의 의심을 걷어내고,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게 돕기 때문이다.⁷²⁾

68) 이오갑, “칼빈의 신인식론”,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44권 1호 (2006): 60, 64.

69)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역, 『기독교 강요 제1권』, 교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11), 79-84; J. I. Packer, J. I. *Knowing God*, 정옥배 역,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8), 76.

70)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69-70.

71)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70.

72)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90-91.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개인은 하나님의 ‘높음’을 인식하며, 동시에 자신의 ‘낮음’을 경험한다.⁷³⁾ 이 과정은 하나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구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⁷⁴⁾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에서 드러나는 인간과 닮은 인성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분의 ‘신성’을 알아가며 피조물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 왜냐하면 ‘창조주’ 이시자 ‘구속주’ 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해 자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했기 때문이다.⁷⁵⁾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다.⁷⁶⁾ Calvin은 인간의 마음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성경 없이는 오류에 빠지며, 말씀 없이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것을 명시한다.⁷⁷⁾

하나님의 지식을 예배와 겸손의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 알아갈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상징적 이미지로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묘사할 뿐 아니라,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명시하신다.

2)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이미지

(1) 상징적 이미지로 제시된 하나님 이미지

먼저 성경에서 상징적 이미지로 드러난 하나님 이미지를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지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 이미지는 특정 단편적인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

73) 이오갑, “칼빈의 신인식론”, 59-86.

74) 이오갑, “칼빈의 신인식론”, 59-86.

75)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79-84;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80.

76)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79.

77)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82-84.

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⁷⁸⁾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 공유되는 성품과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적 성품으로 나뉜다.⁷⁹⁾ 인간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며, 지식과 지혜를 지니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질투하시고 진노하신다.⁸⁰⁾ 인간은 이런 공유된 특징으로 인해 하나님을 유추하고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과 차별된 존재로, 독립적이시며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시다.⁸¹⁾

성경은 실제 하나님을 다양하고 익숙한 이미지로 묘사하되, 특정 이미지에 갇히지 않는 차별화된 존재로 명시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원자, 창조주이시면서 아버지, 토기장이, 목자, 고난 받는 종과 같은 친숙한 이미지로 묘사된다.⁸²⁾ 그러나 Welch는 하나님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온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이며 영원하신 ‘그 아버지’ 라고 설명한다.⁸³⁾ 왜냐하면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다.⁸⁴⁾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로 하나님 이미지를 제한하지 않고, 성경에서 계시한 성품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을 경외와 예배의 마음으로 알아가도록 도와야 한다.⁸⁵⁾

(2) 창조와 구속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은 그분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⁸⁶⁾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피조세계에서 구현하신 질서는

78)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80.

79) W. Grudem, *Bible Doctrine*, 김광열 외 역, 『성경 핵심교리』 (서울: CLC, 2004), 148.

80) Grudem, 『성경 핵심교리』, 148.

81) Grudem, 『성경 핵심교리』, 121.

82) E. Welch, “Who Are We? Need, Longings, and the Image of God in Man,”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3, no 1(1994): 32.

83) Welch, “Who Are We? Need, Longings, and the Image of God in Man,” 32.

84) Welch, “Who Are We? Need, Longings, and the Image of God in Man,” 32.

85)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45-48.

86)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69-70, 79-81.

창조하신 피조물에 선명하게 드러난다.⁸⁷⁾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아름다운 영광이 피조세계에 드러나기 때문이다.⁸⁸⁾ Calvin은 별의 움직임이나 인간의 몸의 구조 등의 예를 들면서, 피조물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⁸⁹⁾ 시편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시 19:2)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피조물과 피조세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도 그분의 선하심과 피조물을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지닌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⁹⁰⁾ 그분은 영원토록 즐거운 삼위일체 교제로 피조물을 초대하셨다.⁹¹⁾

창조 사역 뿐 아니라,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을 드러내신다. 요나서에서 이방인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엿보도록 돕는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인 요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⁹²⁾ 원수인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부당하다고 느낀 요나는⁹³⁾ 니느웨에 회개를 요청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한다.(요 1:3, 4:1-3) 요나의 마음에는 자기중심성과⁹⁴⁾

87)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59-61.

88)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롬 1:19-20);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60, 61.

89)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59-61.

90) T. Keller, *King's Cross*, 정성목 역, 『왕의 십자가』 (서울: 두란노, 2011), 262-263.

91) Keller, 『왕의 십자가』, 262-263.

92) J. Limburg, *Jonah: A Commentary*(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94.

93) D. Stuart, *Hosea-Jonah*, 김영하 역, 『호세아-요나』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0), 875.

94) P. Triple, *Rhetorical Criticism*, 유연희 역, 『수사비평』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7), 291-293.

국수주의적 이기심⁹⁵⁾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요나와 논쟁하시며 그를 설득하신다.⁹⁶⁾ 햇빛을 피하게 도왔던 박녕쿨의 상실로 안타까워하던 요나에게 박녕쿨의 예시를 들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다.⁹⁷⁾ 요나서에서처럼 구약의 이야기들 안에서 자비하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을 통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겸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⁹⁸⁾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자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이다.⁹⁹⁾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했던 모세에게는 그 요구가 거절되었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현시’를 보았다.¹⁰⁰⁾ Calvin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신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한 위격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과 육신의 더러움의 간격에도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겸손에 대해 주목한다.¹⁰¹⁾ 예수님은 그의 신성으로 포도주를 물로 바꾸시고,¹⁰²⁾ 바다 위를 건너시고

95) Stuart, 『호세아-요나』, 875-876.

96) Limburg, *Jonah: A Commentary*, 94.

9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녕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은 4:10-11).

98) 문병호, 『기독교론-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6), 122;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78.

99)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B. Milne, *The Message of John: Here is Your King*, 정옥배 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서울: 한국기독교학 생활판부, 1993), 52; G. R. Beasley-Murray, *Word Biblical Commentary John 1-21*, 이덕신 역, 『요한복음』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1) 14.

100) Beasley-Murray, 『요한복음』, 142.

101) Johannes Calvinus, *Calvini Commentarii 18*, 박문재 역, 『요한복음』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12), 34

102) 요 2:7-12.

¹⁰³⁾, 죽은 자를 살리시며¹⁰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¹⁰⁵⁾하신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과 같이 자연적으로 출생하셨고(마 1:25), 예배에 참석하시고(눅 4:16), 기도하시며(14:23),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사랑하시며, 기쁨(요 15:11)과 슬픔(마26:37), 분노(막10:14)를 느끼시고, 고난과 시련을 당하시고 죽으셨다.¹⁰⁶⁾ 나사로의 죽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죽음과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지니신 하나님을 본다(마26:37).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셨던 예수님께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외에도 그분은 사역과 제자들과의 3년간의 사역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예수님의 선하시고¹⁰⁷⁾ 공의로우신¹⁰⁸⁾ 사역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현시’를 구체적으로 목격한다. 또한 신적 권위를 지니신 예수님은¹⁰⁹⁾ ‘양을 잘 아는 선한 목자’¹¹⁰⁾, ‘생명의 떡’¹¹¹⁾, ‘세상의 빛’¹¹²⁾, ‘양의 문’¹¹³⁾, ‘부활’¹¹⁴⁾, ‘길, 진리, 생명’¹¹⁵⁾, ‘포도나무’¹¹⁶⁾

103) 요 6:16-20.

104) 요 11:43-44.

105) 요 20:1-18.

106) 문병호, 『기독교론-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664.

107) Beasley-Murray, 『요한복음』, 380.

108) Keller, 『왕의 십자가』, 262-263.

109) 문병호, 『기독교론-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122. 123. Milne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 이시기에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니심을 강조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Milne, 『말씀이 육신이 되어』, 53.

110)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만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책 임지고 인도하시며 도둑을 막고 보호하시고 양의 가장 큰 필요(하나님과의 화해)를 잘 아시고 채워주신다(요 10:11-15). Calvinus, 『요한복음』, 422-425; 김서택, 『치료하시는 하나님-요한복음강해-』(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1999), 221, 235, 238.

111) 인간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이다(요 6:35). Calvinus, 『요한복음』, 253-254.

112) 예수님은 눈먼 인간을 어둠에서 구해낸 빛이며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비추는 유일하신 참 빛이시다(요 8:12). Calvinus, 『요한복음』, 336.

등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절정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공의 뿐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 받는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선함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¹¹⁷⁾ 하나님의 진노는 죄가 피조물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진노이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수록 커진다.¹¹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대가를 치루게 하였다.¹¹⁹⁾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을 만큼 죄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며, 동시에 죽으실만큼 인간을 사랑하셨음을 증명한다.¹²⁰⁾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은 심판자 하나님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과 성경의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 이미지 이론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고찰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 이미지의 속성과 특징을 기반으로 Rizzuto의 하나

113)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요 10:9). 인간은 자신의 노력, 지식,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H. Gariepy, *100 Portraits of Christ*, 김덕천 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서울: 새순 출판사, 1992), 242.

114)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는 부활이 생명보다 선행된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할 때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Calvinus, 『요한복음』, 456.

115)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Calvinus, 『요한복음』.

116) 가지인 인간은 홀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요 15:1). Calvinus, 『요한복음』, 589-590.

117) Keller, 『왕의 십자가』, 262-263.

118) Keller, 『왕의 십자가』, 263.

119) Keller, 『왕의 십자가』, 263-264.

120)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동기가 인간을 파괴하는 죄에 대한 분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질서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Keller, 『왕의 십자가』, 264, 268.

님 이미지 이론의 한계와 기독교 상담에의 유용성을 살펴본다.

3. Rizzuto의 하나님 이미지 이론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고찰

1) Rizzuto의 하나님 이미지 이론의 한계

(1) 영적차원을 간과하고 인지적 차원만을 고려한 하나님의 이미지

Rizzuto가 하나님 이미지의 존재와 형성과정을 인지적 차원으로 국한시킨 것과 상반되게 하나님의 이미지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지적 차원 뿐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적 차원’을 포함하는 지식이다.¹²¹⁾ 인지적 측면에서 인간은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만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¹²²⁾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¹²³⁾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교리이해에 기반한 사변적인 지식보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얻을 수 있고,¹²⁴⁾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지식”이다.¹²⁵⁾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된 하나님 이미지는 실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성경말씀에 조명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필요한 영적 지식이지만, Rizzuto는 단순히 인지적 차원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였다.¹²⁶⁾

(2) 고려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

Rizzuto는 하나님 이미지를 주요 가족과 타인의 이미지로 제한하여,

121)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79-84;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76.

122)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79-84;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57.

123)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79-84;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76.

124)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56.

125)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69.

126) 홍구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념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1권(2011): 340-341.

하나님의 ‘신성’을 간과하고, 인간의 불안정한 모습에 기반 한 ‘인성’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국한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 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또한 완전하기에 인간과의 관계 경험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 Welch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이 기존에 경험한 아버지가 아닌 인간의 아버지와 차별화되는 ‘그 아버지’라고 설명한다.¹²⁷⁾ 동시에 예수님은 인성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히 4:15, 마 5:17)

(3) 중간 대상으로 환원시킨 실체이신 하나님

Rizzuto는 하나님 이미지를 인간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창조해낸 환상적 대상으로 설명한다.¹²⁸⁾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적 피조물이 아닌, 유일무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영적인 존재이시다.¹²⁹⁾ 그러므로 하나님을 일종의 현상이나 피조물과 같이 물질로 환원하여 이해할 수 없다.¹³⁰⁾ 더 나아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¹³¹⁾ 이처럼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¹³²⁾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온전히 알아갈 수 있다.¹³³⁾

127) Welch, “Who Are We? Need, Longings, and the Image of God in Man,” 32.

128)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329.

129) “하나님은 영이시니”(엡 4:24).

130) Grudem, 『성경 핵심교리』, 149-150.

131)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갈 4:9). Packer, *Knowing God*, 64.

132)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갈 4:9).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64.

133)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70.

(4) 특정 하나님 이미지의 고착에 대한 위험성

Rizzuto의 이론은 하나님을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나 지식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정 이미지에 갇히는 분이 아니며, 이렇게 하나님을 특정 이미지나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이다.¹³⁴⁾ Packer는 하나님을 특정 이미지로 정형화시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경건하다고 설명한다. 첫째 하나님을 의미하는 형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¹³⁵⁾ Calvin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행위를 금하며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 안에서 찾으려는 행위는 인간의 완악한 행위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임을 설명한다.¹³⁶⁾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특정 이미지에 고정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왜곡시킨다.¹³⁷⁾ 인간이 마음속에 특정 하나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이미지를 예배했을 위험성이 크다.¹³⁸⁾ 성경은 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특정 이미지에 가두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한다.¹³⁹⁾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 개념 너머에 계시는 신비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¹⁴⁰⁾ 이것은 우리가 경험 안에서 규정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실체가 고정된 이미지를 파괴해야 하는 것이다.¹⁴¹⁾

이와 같이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일반적 관점은 하나님을 아는 ‘앎’을 단순한 지적 행위로 제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깨닫는 ‘영적인

134)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68.

135)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68.

136)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118.

137)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74.

138)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74.

139)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75.

140)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75.

141) C. S. Lewis, *A Grief Observed*, 강유나 역, 『헤아려본 슬픔』 (서울: 홍성사, 2004), 95.

않'을 부정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가족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환상의 중간대상으로 여기거나, 형상화하여 실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Rizzuto의 이론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기독교 상담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2) Rizzuto의 하나님 이미지 이론의 유용성

(1) 체계적인 하나님 이미지 진단의 필요성

첫째, Rizzuto의 이론은 개인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인할 때, 영적 영역과 더불어 인지적 영역의 '하나님 이미지 진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영적 차원으로 교제하는 인간은 인지적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특정 개념, 관계 경험, 에피소드 등으로 저장된 다각도의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Rizzuto는 개인의 하나님 이미지를 확인 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한 일화,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¹⁴²⁾ 그녀는 하나님에게 실망했던 과거의 경험들, 가계도, 하나님에 대한 그림 또는 형용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경험 에피소드, 연대기적, 발달적 인생내력, 기도문 등을 사용하여 다각도로 하나님 이미지를 추적할 것을 제안한다.¹⁴³⁾ 기독교상담자는 개인의 하나님 이미지를 Rizzuto가 제시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하고, 하나님 이미지와 주요 대상과의 관계, 정신 병리와 같은 개인의 내적 역동과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해야 할 수 있다.

(2)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고려한 하나님 이미지 추정

Rizzuto의 이론은 하나님 이미지와 부모와 주요 타인과의 관계 경험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Rizzuto는 다양한 관계 경험의 진단을

142)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28-30.

143)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28-30.

통해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를 진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¹⁴⁴⁾ 부정적으로 편향되고 고착된 하나님 이미지는 과거 개인의 가족의 관계 경험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요 타인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¹⁴⁵⁾ Rizzuto의 사례에서 이상화한 아버지와 적대적인 어머니의 모습의 내사하여 ‘양극화된 하나님 이미지’가 형성된 한 내담자는 하나님에 대한 극단적인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다.¹⁴⁶⁾ 다른 내담자의 경우 따뜻한 아버지의 관계 경험에만 고착되어 ‘수용적인 하나님 이미지’만을 형성하였기에, 삶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부적응을 초래했다.¹⁴⁷⁾ 이처럼 편향된 하나님 이미지는 과거 관계 경험으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를 비롯한 왜곡된 관계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

(3) 하나님을 ‘중간대상’ 화 하는 자기중심적 죄와 정신 병리의 연관성에 대한 실증자료 제공

Rizzuto의 사례연구는 자기중심적 죄성과 정신 병리의 역동적 관계에 대해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격하시켜 자신의 불안을 완화하거나 위로의 도구로 삼으려는 인간의 죄성과 정신 병리와의 연관성을 일정 부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Rizzuto의 한 내담자는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¹⁴⁸⁾ 그녀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도 관대하다고 여겼고, 삶의 고통과 죄를 직면하지 않은 채 회피하고 억압하였다.¹⁴⁹⁾ 딸의 결혼과 남편의 병으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겪은 그녀

144)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30.

145)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186-199.

146)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207-245.

147)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186-199.

148)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181-200.

149)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181-200.

는 ‘보호의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님’ 이미지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극심한 공포증을 경험한다.¹⁵⁰⁾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상의 하나님’을 만들고 숭배하려는 인간의 경향은 Calvin의 경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alvin은 하나님 자신이 계시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인간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들어 내는 타락된 경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¹⁵¹⁾ 왜냐하면 자신의 환상을 경배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마음에서 몰아내는 행위일 뿐이며 그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¹⁵²⁾ 지금까지 살펴본 Rizzuto 이론의 기독교 상담적 평가는 하나님 이미지를 상담에 활용할 때 주의할 점과 유용한 점을 제공해주었다. 이를 기반으로 상담 과정에서 하나님 이미지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확인해본다.

4. 하나님 이미지에 관한 기독교 상담에의 적용

1) 하나님 이미지의 체계적인 진단과 검토

무엇보다 상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내담자의 하나님 이미지가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한다 해도,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투사한 신의 형상이라면,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가 성경에서 계시하는 참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경적인 하나님 이미지의 진단이 기독교 상담의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으로 성경의 하나님 이미지를 진단하고 탐색하는 방식은

150)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181-200.

151) 바울은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롬 1:21-22).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53-55.

152)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55-56.

기독교 상담에서 전무하였다.¹⁵³⁾ 이에 Rizzuto가 제시한 하나님 이미지 탐색방법은 개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영적인 포괄적 이해와 더 나아가 가족 및 주요 타인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진단 아이디어들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정 질문들을 통한 Rizzuto의 하나님 이미지 탐색방법을 활용하여 하나님 이미지 진단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Rizzuto는 질문들을 통해 멀다/가깝다 등의 단차원적인 하나님 이미지 뿐 아니라 하나님 이미지가 형성된 과거 경험과 그때의 해석 과정들을 탐색하여 내담자의 왜곡되거나 편향된 하나님 이미지의 형성과정과 정신 병리와의 역동을 추적하였다.¹⁵⁴⁾ Rizzuto의 질문은 하나님 이미지를 심층적으로 측정하려는 타 연구에서도 쓰였지만, 하나님을 중간대상으로 전제한 질문까지 포함한 오류를 지닌다.¹⁵⁵⁾ 이에 본 연구는 Rizzuto의 질문 중 하나님을 환상의 일종인 ‘중간대상’으로 전제로 한 질문들은 제외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전제로 하여 기독교 상담에 활용될 수 있는 질문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표1〉 하나님 이미지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질문들¹⁵⁶⁾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멀리 있는-가까운 하나님/
좋아하는-증오하는 하나님]

1.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 또는 가깝지 않다.

왜냐하면 _____

153) 성경적 관점에서 안은숙은 하나님 이미지를 확인하였지만, 일화와 인상을 ‘그림’을 위주로 측정하였다. 안은숙,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 상담 방안 연구”, 184.

154)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28-30, 399-405.

155) Peloso, J. M., “Adult Images Of God: Implications For Pastoral Counseling,” *Journal of Pastoral Counseling* 43(2008): 15-31.

156) 하나님 이미지 측정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Lawrence의 하나님 이미지 척도와

2.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느꼈을 때는 ___ 살 때였다.

왜냐하면 _____

Gorush의 하나님 형용사척도는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이미지만을 측정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멀거나-가깝거나/ 수용적-거부적 등을 진단할 수 있다. R. T. Lawrence, "Measuring the Image of God: The God Image Inventory and the God Image Scales," 214-226; R. L. Gorsuch, "The Conceptualization of God as Seen in Adjective Ratings," 56-64. 그러나 위의 1-3번의 질문들을 통해, 상담자는 하나님을 멀거나 가깝게 느끼는 '이유'를 묻는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한 이유, 예를 들면 과거 특정 사건이나 관계 경험의 이해는 내담자의 현재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 '멀리 있다고 느끼는 하나님'과 그 이유에 관한 접근은 상담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 멀리 있는 하나님은 개인의 정신 병리와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M. Bradshaw, C. G. Ellison, & J. P. Marcum, "Attachment to God, Images of God,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 Nationwide Sample of Presbyterian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0, no 2(2010): 130-147; P. Benson & B. Spilka, "God Image as a Function of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297-310. 6-7번의 질문들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개인이 좋아하고, 감사하는지, 또한 싫어하는지를 찾도록 돕는다. 9번을 통해 내담자의 하나님이 인식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신이 특정 행위나 조건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경우 그 내담자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수용 받는다고 믿는 율법주의적 성향 갖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7번과 8번은 개인이 흔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처벌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처벌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정신 병리와 밀접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연구들과 치료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다. J. Lindsay, "God Concept as a Function of Psychopathology in Religious Subjects"(Ph.D. diss., Rosemead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1978); B. F. Brokaw & K. J. Edwards, "The Relationship of God Image to Level of Object Relations Develop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2, no 4 (1994): 354에서 재인용. 12, 13번은 내담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을 확인하도록 돕는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도록 돕고, 그 이유를 질문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정신 병리의 핵심 감정 중 하나인 죄책감, 수치심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김화자, "하나님 이미지와 수치심이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 20권, (2013): 94-124. 14, 15번은 개인이 지닌 총체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탐색함으로써 하나님 이미지의 변화의 계기와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하나님 이미지는 상담 과정 중 또는 마지막 과정에서 질문함으로써 상담 과정 전체에서 변화되었던 하나님 이미지를 성찰하고 반추하도록 한다.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399-405.

3.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다고 느꼈을 때는 ___ 살 때였다.
왜냐하면 _____
4. 내가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면은 이런 것이다. 또는 나는 ___ 살 때
하나님을 좋아했다.
왜냐하면 _____
5. 내가 하나님의 가장 증오하는 면은 이런 것이다. 또는 나는 ___ 살 때
하나님을 증오했다.
왜냐하면 _____
6.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갖는 또는 가져본 느낌은 이런 것이다.
왜냐하면 _____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특정 조건]

7. 나는 대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_____

[인과응보의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8. 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징벌하는 방식은 _____ 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_____
9. 나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은 _____ 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_____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10.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보실 것이다.
왜냐하면 _____
10. 나는 하나님의 _____ 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_____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 이미지]

12. 내가 하나님에 관한 나의 생각을 바꾼 날은 ___ 였다.
왜냐하면 _____
13. 만약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대로 서술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_____

2)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 이미지의 변화

진단 질문들을 통해 특정 하나님 이미지와 그 형성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한 후, 상담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올바르게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하나님 이미지는 Rizzuto가 설명한 인간과의 관계 경험을 넘는 초월적 사건이며 영적인 교제를 기반으로 형성된다.¹⁵⁷⁾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부모나 주요 타인과의 경험 뿐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모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Packer는 상상력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성이지만, 하나님을 특정한 형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성경과 시편에서 언급하듯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과 성품에 대한 상상력을 사용하길 권한다.¹⁵⁸⁾ 관계 경험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모습을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환원시키거나, 자신의 대인관계 틀에 가두는 오류가 없도록, 기독교 상담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독려할 수 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내용과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3) 영적 교제를 통한 하나님 이미지의 변화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로 인한 ‘영적인 앎’을 기반으로 하므로¹⁵⁹⁾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성령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 개념의 실재를 경험하는 것을 포함한

157)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57.

158)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80.

159) Calvin, 『기독교 강요 제1권』, 79-84;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76.

다.¹⁶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개인의 지성을 통한 인지적 과정뿐 아니라, 한 개인의 모든 인격적 요소, 즉 지성과 감정, 의지를 요구하는 과정이다.¹⁶¹⁾ Packer는 시편 34편 8절을 통해 “너희는 여호와와의 선하심을 맛보다 알지어다.”에 대해 ‘맛봄’ 즉 서로간의 인격적 만남을 강조한다.¹⁶²⁾ 서로의 관심사와 마음, 감정을 나눌 때 서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식적인 교류를 넘어 서로 공감하고 아는 것이며 인격적 경험의 측면을 포함한다.¹⁶³⁾ 이를 위해 일상 영성 회복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이미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편지를 쓰거나 일기를 쓰는 방식¹⁶⁴⁾, 일상 영성일기¹⁶⁵⁾, 삶의 성찰 저널링¹⁶⁶⁾을 쓰는 방식 등을 통해 내담자는 하나님을 가깝게 경험할 기회를 갖는다. 두 번째로 상담과정에서 기독 상담자¹⁶⁷⁾와의 관계경험과,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특히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서로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재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는 부모와 주요 타인, 자기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도 발견되고 변화되기 때문이다.¹⁶⁸⁾ 특히 부모와 영적권위자들, 공동체 지체들은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다각도로 공동체 지체

160)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60-61.

161)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61-63.

162)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61-63.

163) Pack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62-63.

164) 안은숙,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 연구”, 184.

165) H. J. M Nouwen, *Spiritual Direction: Wisdom For The Long Walk of Faith*, 윤종석 역, 『영성 수업』 (서울: 두란노, 2010), 133-137.

166) 심정연, “다중접속역할수행 게임(MMORPG)중독자의 외로움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접근”,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3권 1호(2015): 221.

167) 홍구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념과 하나님의 이미지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344.

168) Jones, 『현대 정신분석학과 종교-전이와 초월』, 129-130.

들 간의 관계에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III. 닫는 글

Rizzuto의 하나님 이미지 이론은 개인의 '하나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상담학계에 언급하면서 정신건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각성시켰다. 그러나 Rizzuto의 하나님 이미지 이론은 영적차원을 간과하고 인지적 차원만을 고려하였고,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을 환상의 일종인 중간대상으로 환원시키며, 특정 하나님 이미지에 고착될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Rizzuto이론은 다음과 같이 기독교 상담의 유용성을 제시한다. 먼저 체계적인 하나님 이미지 진단의 필요성과 하나님 이미지 추정 시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Rizzuto는 개인의 죄와 정신 병리의 연관성에 대한 실증 자료를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런 한계점과 유용성을 기반으로 상담 시 하나님 이미지의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기독교 상담과정에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질문을 통해 하나님 이미지의 명확한 진단과 검토를 하고, 둘째,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상담자, 공동체, 가족을 통한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 이미지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일반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을 기반으로 Rizzuto의 하나님 이미지 이론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고, 성경적 관점으로 평가한 의의를 지닌다. 더 나아가 Rizzuto이론에서 얻은 통찰로 상담 과정에서 하나님 이미지의 진단, 말씀과 실제 대인관계를 통한

하나님 이미지의 변화 양상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확인하였다. 추후에는 복음을 통한 균형 잡힌 하나님 이미지의 형성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나 하나님 이미지와 가족이미지에 관한 상관성 연구, 하나님 이미지와 개인의 정신건강과의 연구들이 다양하게 실행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 김서택. 『치료하시는 하나님-요한복음강해-』.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1999.
- 김은정. “청소년의 종교성과 영적 안녕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6.
- 김화자. “하나님 이미지와 수치심이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0권(2013): 94-124.
- 문병호. 『기독교론-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6.
- 반신환. “신형상(Divine Image)에 대한 Rizzuto의 대상관계론적 이해와 그 비판”.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13권(1997): 213-228.
- 심정연. “다중접속역할수행 게임(MMORPG) 중독자의 외로움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접근”.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3권 1호 (2015): 191-231.
- 서경현. “종교를 가진 고등학생의 영적 안녕과 자기개념 및 정신건강 간의 관계”. 한국 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제3권 3호(2014): 219-241.
- 안은숙.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 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1권(2013): 156-189.
- 오윤선. “청소년 발달특성 문제에 관한 기독교 영성과 상담심리의 통합적 접근”.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2008): 209-236.
- 이은규. “복음주의 상담을 위한 영성에 관한 고찰”.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 (2008): 9-44.
- 이재현. “인간 형상과 하나님 형상: 내면적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목회 신학적 고찰”.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제21권(2013): 191-215.
- 이정모 · 강은주 · 김민식 · 감기택 · 김정오. 『인지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9.
- 이해리. “심리치료에서의 종교와 하나님 표상에의 접근: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연구』 제5권4호(2004): 1293-1310.
- 이혜진. “기독교대학생의 인지적 편향과 하나님상과의 관계”.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8권(2007): 278-299.
- 장은주. “대학생의 영성, 감성, 우울과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6.

- 전요섭 · 배은주. “청소년의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 -기독교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5권(2005): 321-346.
- 최승진. “부자유친성정이 기독교 청소년의 자기표상과 하나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1권(2013): 322-351.
- 최영민. “기독교상담에서 종교성과 영성의 평가”.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3권(2001): 139-158.
- 홍구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념과 하나님의 이미지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1권(2011): 333-350.
- 황혜리 · 김경탁. “기독교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자존감의 관계.”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6권 1호(2005): 275-286.
- 황혜리 · 김미경. “기독교인의 하나님 이미지와 비합리적 신념의 상관관계”.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연구」 제4권 4호(2003): 867-881
- 황혜리 · 김지윤. “기독교 상담에서 하나님 이미지의 중요성 연구: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이미지와 영적안녕,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3권1호(2012): 263-286.
- 황혜리 · 류수정. “기독교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1권 (2006): 191-212.
- Beasley-Murray, G. R. *Word Biblical Commentary John 1-21*. 이덕신 역. 『요한복음』.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1.
- Benson, P. & B. Spilka. “God Image as a Function of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2(1973): 297-310.
- Bradshaw, M., C. G. Ellison & J. P. Marcum. “Attachment to God, Images of God,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 Nationwide Sample of Presbyterian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0, no 2 (2010): 130-147.
- Brokaw, B. F. & K. J. Edwards. “The Relationship of God Image to Level of Object Relations Develop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2, no 4 (1994): 352–371.

Calvin, J.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역. 『기독교 강요 제1권』,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11.

Calvinus, Iohannes, *Iohannes Calvini commentarii* 18. 박문재 역. 『요한복음』,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12.

Clair, M. S. *Human Relationships and the Experience of God – Object Relations and Religion –*. 이재훈 역.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 대상관계 이론과 종교 –』,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Freud, S. *Totem and Taboo*. London: Routledge, 2003.

Garipey, H. *100 Portraits of Christ*. 김덕천 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 서울: 새순출판사, 1992.

Gorsuch, R. L. “The Conceptualization of God as Seen in Adjective Rating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7, no 1(1968): 56–64.

Grudem, W. *Bible Doctrine*. 김광열 · 광철근 공역. 『성경 핵심교리』, 서울: CLC, 2004.

Hamilton, N. G. *Self and Others—Object Relations Theory in Practice*. 김진숙 · 김창대 · 이지연 공역.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자기와 타자—』, 서울: 학지사, 2007.

Hoekma, A. A. *Created by God's Image*. 이용중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Jones, J. W. *Contemporary Psychoanalysis & Religion –Transference and Transcendence–*. 유영권 역. 『현대 정신분석학과 종교—전이와 초월』, 서울: 한국 심리 치료 연구소, 1999.

Kohut, H.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7.

Keller, T. *The Counterfeit Gods*. 이미정 역. 『거짓 신들의 세상』, 서울: 베가북스, 2012.

Keller, T. *King's Cross*. 정성목 역. 『왕의 십자가』, 서울: 두란노, 2011.

Kernberg, O. F.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윤순임 · 이용승 · 김정욱 · 도상금 · 심영숙 · 문형춘 · 남기숙 공역.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 서울: 학지사, 2014.

Lawrence, R. T. “Measuring the Image of God: The God Image Inventory and the God Image Scal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no 2(1997): 214–226.

- Lewis, C. S. *A Grief Observed*. 강유나 역. 『헤아려본 슬픔』. 서울: 홍성사, 2004.
- Limburg, J. *Jonah: A Commentary*.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 Loder, J. E. *The Logic of Spirit –Human Development in Theological Perspective–*. 유명복 역.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발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 Merriam–Webster Dictionary. Accessed on March 5, 2016. Available at: <http://www.merriam-webster.com>.
- Milne, B. *The Message of John: Here is Your King*. 정옥배 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1993.
- Nguyen, T. T., C. Bellehumeur & J. Malette. “God Images and Resilience: A Study of Vietnamese Immigrants.” *Journal of Psychology & Theology* 43, no 4 (2015): 271–282.
- Nouwen, H. J. M. *Spiritual Direction: Wisdom For The Long Walk of Faith*. 윤종석 역. 『영성 수업』. 서울: 두란노, 2010.
- Packer, J. I. *Knowing God*. 정옥배 역.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8.
- Peloso, J. M. “Adult Images Of God: Implications For Pastoral Counseling.” *Journal of Pastoral Counseling* 43(2008): 15–31.
- Rizzuto, A. M. *The Birth of the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이재훈 · 유영권 · 안석모 · 황영훈 · 반신환 · 정희성 역. 『살아있는 신의 탄생–정신분석학적 연구–』.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2000.
- Stuart, D. *Hosea–Jonah*. 김영하 역. 『호세아–요나』.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0.
- Trible, P. *Rhetorical Criticism*. 유연희 역. 『수사비평』. 경기도: 한국기독교연구회, 2007.
- Welch, E. T. “Who Are We? Need, Longings, and the Image of God in Man.”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3, no 1(1994): 25–38.
- Winnicott, D. W. *Playing and Reality*. 이재훈 역. 『놀이와 현실』.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1997.

【 Abstract 】

Christian Counselling's Study and Approach
based on Rizzuto's God's Image Theory

-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od's Image's
Transformation Model -

Jung Yeon Shim
Chongshin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izzuto's God's image theory in order to suggest God's image's applications to Christian counseling.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this article explained Rizzuto's God's image theory and God's image in Bible. With the perspective God's image in Bible, this study analyzed the limitation and usefulness of Rizzuto's theory. Then specific applications were suggested to Christian Counseling.

According to understanding God's image revealed by God's works of creation and redemption in Bible, Rizzuto's theory suggest limitations and usefulness as follows: the limitations of Rizzuto's theory were that she considered only cognitive dimensions of God without thinking God's Deity and the complete Humanity of Christ and regard God as a 'transitional object' a kind of illusion. Moreover, her theory has a dangerous element to be adhere a specific God' image. Nevertheless, her theory gave various useful counseling ideas and insights such as a systemic methodology of God's image's diagnosis, importance of exploring parent's image when a counselor searched one's God's image, dynamics of self-focused sin and mental illnes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ree applications to Christian counseling: a systemic and complex diagnosis method of God's image, God's image's transformation based on God's image in Bible, and spiritual relationships with God, Christian counselors, church community and family members.

Key words: Rizzuto, God's image, object relations, God's image in Bible, God's image diagnosis method.